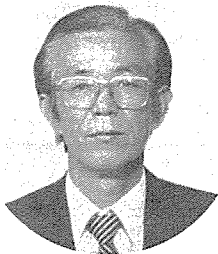


原子力 곳 거리



徐斗煥
(韓國에너지연구소
원자로관리실장)

우리 벗님네야 내말 좀 들어보소오.
때는 日氣和暢한 모월 모일이라.
곳은 충청도 하구도 계룡산 기슭 大德땅.
이 곳에다 원자력곳판을 벌인다는 것 이렸다.
각설허구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만신은 여러
신들이 坐定하기를 기원하는 천수거리를 시작했
겠다.

덩다라 덩더끼 덩다라 덩콩!

어허 에에 하.

이 곳은 海東이야. 대한민국 땅이로소이다야.
원자력신령님께 제사지낼 신성한 제단이야.
天地神明 日月星辰, 일심으로 바라오니 여러
자력신령님 수고타 마옵시고 降臨하게 하소사야.
원자력대왕님들 나오신다.

물체인지 빛인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나오신다.
신통하고 영특함을 서로 겨루기라도 하듯 차례
대로 나오신다야.

아하 어허라.

古代原子論을 완성한 데모크리토스(Democritos)
님, 원소주기율을 만드신 멘델레예프(Mendeléev)님,
X선의 발견자 뢰트겐(Röntgen)님, 라듐(Ra)의 발
견자 퀴리(Curie)내외분, 量子論을 펴낸 플랑크(P-
lanck) 님, 원자핵을 찾아낸 러더퍼드(Rutherford)님,
상대성이론을 세운 아인슈타인(Einstein)님, 波動力
學을 낸 시뢰딩거(Schrödinger)님, 불확정성원리
를 세운 하이젠베르크(Heisenberg)님, 중성자를 발
견한 차드윅(Chadwick)님, 人工放射能을 만들어
낸 졸리오(Joliot)내외분, 우라늄(U)의 원자핵반응
을 발견한 하안(Hahn)님, 그리고 原子爐를 처음 만
든 페르미(Fermi)님,...

모두 모두 서양귀신이로구나야. 동양 귀신은 무
엇 했느냐.

아아 에에 와.

原子大王님의 元子도 함께 나오신다야.

電子, 陽子, 中性子, 核子, 量子, 重陽子, 光子, 磁
子, 粒子, 素粒子, 中性微子, 中間子, ..., 孔子, 英子
는 안보이드냐.

이들 모두 원자력의 씨톨(精子)이 아니드냐. 모
든 물질의 알터(子宮)가 아니드냐야.

어어이 쉬어이.

너희들은 혼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에게 팔아먹은 鍊金術師 파우스트(Faust)나. 들리느니 원자력 공포의 울부짖음이다.

원자폭탄, 수소폭탄, 죽음의 재라는 방사능, 미국 드라마일섬(TMI) 및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어둡고 긴 겨울이 온다는 核冬, 영화 "The Day After(그 훗날)", 핵미사일, 뜻도 알 수 없는 SDI(전략무기구상), 심지어 술에도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이 생겼구나아.

아아 에에 화.

비나이다 비나이다. 원자력대왕님께, 자제분들에게 비나이다아.

오늘 이 자리굿판, 원자력에 대하여 無識하고 愚昧한 백성에게 원자력의 공포를 털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없애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싸쓸이 해 주사이다아.

흔쾌한 마음으로 원자력의 德을 알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는 길마다 불밝혀 주시고, 인도 하여 주소사아.

아아 에에와.

원자력 元祖 아인슈타인님이 대표로 나오신다. 내 입을 통해서 쓸쓸 거미줄 나오듯이, 누에줄 나오듯이 아인슈타인님의 말씀이 靑山流水같이 나오신다아.

이 야마리까진 인간들아. 요렇게도 싸가지 없는 인간들아아. 어찌하여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른다드냐. 自過는 不知로다. 왜 원자력만 시비드냐아.

제우스(Zeus)가 준 開放禁止의 상자를 열어 세상에 죄악을 퍼뜨리고 희망만을 남긴 판도라(Pandora)를 아느냐. 두 얼굴을 가진 守門將 야누스(Janus)를 아느냐. 지킬(Jekyll)박사와 미스터 하이드(Hyde)를 아느냐아.

세상만사 好事多魔요, 塞翁之馬요, 二律背反이다. 陰陽, 黑白, 明暗, 虛實, 相克, 善惡, 正反, 表裏, 愛憎, 有無,...

이런 문짜를 아느냐아.

동서양 문짜 째뽕이로구나.

이것들이 조화 이루고, 이것들이 交舍하고,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이것들이 相補的인 관계 맺어 세상이 이루어진 것 아니었든가.

원자력에 대하여 취빨도 모르면서 오도방정 떠는구나. 아는 것이 힘이라 했겠다. 배워서 남 주나. 알아야 면장질 하지.

글 불양이면 千字는 七書의 本文이다. 천자문도 익히지 않고 周易을 알겠다는 거냐, 낫놓고 "ㄱ"자도 모르면서 "A"만 보고 "Atom(아톰: 원자)"을 알려고 드는구나아. "α(알파)"도 모르면서 "Ω(오메가)"를 알겠다는 거냐아.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PR(홍보활동)이라든가. 피하지 않고 몽땅 알려 주마, 배워 주마, 가르쳐 주마아, 살풀이 하자구나아, 특 털어나 보자구나아.

天地之間 萬物之衆에 唯人이 最貴라. 천지지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나니라. 인간, 동식물, 물, 공기, 불, 흙, 옷, 음식, 집,...

혈말은 무궁하나 입이 아프고 숨이 가파서 말이 안나오는 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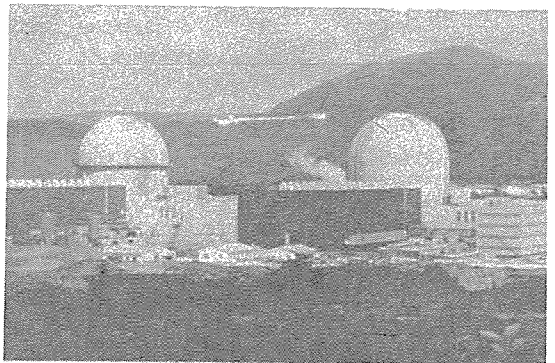
어어이 슈이이.

원자력 세상이란 별것이드냐.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原理가 아니드냐. 진리가 아니드냐아.

너희들이 아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 뿐이 아 니드냐. 물체는 연속적인 성질을 가진다. 因果律은 확정적인 것이다. 물질은 영원불멸이라고만 알고 있다.

원자력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물체는 불연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인과율은 확률적인 것이고, 물질은 변환한다. 물질이 에너지이고 에너지가 물질이다아.

물질은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전자와 핵으로 되어 있고, 핵은 양자와 중성자라는 핵자로 되어 있고, 핵자는 소립자로 되어 있고, 소립자는 쿼크로 되어 있고...

성경책 創世記에서 많이 들던 소리 같구나아. 원자력의 뿌리를 찾자. 남의 족보나 알고 말하지아.

어어 에에 와.

너희들이 흥청망청 쓰고 있는 전기의 50%가 원자력인 줄 알고나 있느냐.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235 1그램이 내는 에너지가 석탄 3톤과 같은 에너지와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놈이 쪼개지면 1킬로와트 짜리 전기히이터 1000개 갖다 놓고 하루 종일 피우는 열과 맞먹는 열을 낸다는 것을 알고나 있느냐아.

원자력발전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년 심백육십오일 얼마나 勞心苦焦하고 있는지 알고나있느냐. 원자력발전소에서 생기는 방사능을 몇겹으로 막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燃料自體, 燃料棒, 강철제의 壓力容器, 강철과 콘크리트의 格納建物 등등. 多重·深層으로 막고 있구나아.

사고를 막기 위하여 貯水탱크, 자동스프레이 등등, 긴급냉각장치가 있도다아. 바깥으로 새는 방사능을 晝夜長川 감시하는 순라(방사선안전관리요원)가 있고 육목방망(방사선모니터)이 있도다아.

아아 에에오.

식칼은 식품조리에 요긴하게 쓰이고 살인흉기로 둔갑하네, 가솔린은 자동차 잘 굴리고 불지면 폭발하네, 연탄은 방을 따뜻하게 하고 연탄가스 사람 죽이네에. 원자력 한꺼번에 태우면 원자폭탄, 조금씩 태우면 전기 만들어 내는구나.

청산유수 말삼 잘도 한다.

遊山遊水 잘도 놀아난다.

너희들 이야기 모두 모두 거짓말이다. 위선이다, 허위다, 사기다, 我田引水格이로구나아. 소련 체르노빌 원자발전소 터졌다. 그거렸다.

연탄온수보일러 파이프 터졌구나, 물이 끊어졌구나아. 그것도 모르고 계속 불지피는구나아. 물 증발하고 보일러밀장 녹아 떨어지고, 불 나고, 연탄가스 샐구나. 이것이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



소 사고이다아. 소련놈들 人命賤視, 그럭저럭주의, 돈 아껴 격납물건 짓지 안했구나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보소오. 격납물건 튼튼하니 방사능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구나. 백성들아아! 걱정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안심해라, 믿어라아!

아하 에에 와.

씨는 같지만 얼굴이 다른 형제 放射性同位元素, 어미는 같지만 종자가 다른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성자선의 착한 행실, 거동 살펴 보자구나아.

암의 박살, X선검사, 체내기능의 조사, 비료효과와 추적, 식품의 품질개량, 식품의 살균·저장, 비파괴검사, 硬化木材, 耐熱性플라스틱, 인공심장, 문화재연구, 靜電氣消去, 피·오줌의 성분검사, 공해의 오염원인조사, 범죄수사, 병마의 진단·치료, 農工醫의 이용, 이트세트러(etc), 이트세트러,...

다 말하려면 끝이 없고 한이 없구나아. 言不盡兮分다. 시간이 없구나. 입이 모자라 더 이상 대지 못 하겠다.

무너는 神界로 다시 돌아가는 원자력대왕님들을 즐겁게, 기분 좋게 보내기 위하여, 가볍고 경쾌한 춤사위로 빠른 장단에 맞추어 숨을 몰아쉬면서 送神舞를 추어댄다.

쉬이이. 어어화.

젠젠, 젠젠, 재재젠, 재재젠, 재젠, 디이잉!

구경꾼들, 백성들은 신지편 만신에게 저도 모르게 감응하여 저마다 만만세 부르면서 우뢰와 같은 박수를 한동안 보냈다는가.